

가을 남원서 낭만 야행



다음달 3~6일 광한루원·요천월궁광장 일대 '문화유산 야행' 야경·야사 등 8가지 주제, 체험·먹거리 등 34개 프로그램 다채

남원시가 오는 10월3일부터 6일까지 광한루원과 요천월궁광장 일원에서 낮보다 더 아름다운 광한루원의 밤풍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2024 남원 문화유산 야행'을 개최한다. '남원 문화유산 야행'은 2020년부터 '국가유산청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 사업' 공모에 5년 연속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올해는 역대 가장 많은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구성된다.

이번 야행은 '광한루원 달나라 궁전으로 초대'라는 주제로 광한루원 일대에서 밤에 즐길 수 있는 여덟 가지의 주제(8야), 34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축제 테마인 '8야(夜)'는 ▲밤에 비춰보는 문화유산 '야경(夜景)' ▲밤에 듣는 역사 이야기 '야사(夜史)' ▲공 이야기 '야설(夜說)' ▲밤에 걷는 거리 '야로(夜路)' ▲진상품 장시 이야기 '야시(夜市)' ▲밤에 보는 그림 '야화(夜畵)' ▲음식 이야기 '야식(夜食)' ▲문화유산에서의 하룻밤 '야숙(夜宿)'으로 구성

됐다. '2024 남원 문화유산 야행'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예약을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인원이 모두 채워지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 외에 현장 접수를 병행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해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방침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남원 문화유산 야행을 통해 달나라 궁전 광한루원의 밤을 거닐며 남원만의 특별한 야행을 느끼고,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길 바란다"며 "남원에서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보물을 그린다

군, 내년 10월 세계유산축전 영상 공모전·문화 공연·체험 등



고창의 대표적 세계유산 고인돌.

고창군이 국가유산청의 '2025년 세계유산 축전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1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외국인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 대상 선정은 세계유산 보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신청을 받아 8월 발표심사와 질의응답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고창 세계유산 축전'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자연유산인 깎배기를 보유하고 있는 희소성을 바탕으로 '고창의 보물, 자연과 사람을 그린다'라는 주제로 내년 10월, 고인돌유적지와 고창 갯벌 일원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고창의 세계유산을 주제로 개막식, 사진전, 특별전, 사진·그림·영상 공모전, 문화공연 및 체험, 유적 투어, 국제학술대회,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창 고인돌은 밀집도와 다양한 형식 등의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2000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에 등재됐다. 고창갯벌은 지질학적 가치와 멸종, 희귀생물종, 고유종 등의 다양한 생물서식지로 생태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202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기후 위기 대응 전략 중간 점검

건물·농축산 등 5개 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과제 논의

정읍시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에 나섰다. 정읍시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중장기 탄소중립 전략 점검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전략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송금현 부시장을 비롯해 시의 지표담당부서와 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연구진이 작성한 기본계획 내용을 청취한 후 질의응답과 함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시의 2050 탄소중립 비전과 구체적

인 추진 전략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등 5개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46개의 세부 이행과제를 논의하며 실효성 있는 실행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시는 2025년 3월29일까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보고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자문 내용을 최종보고회에 적극 반영해 기본계획을 완성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달달' 한 고창배, 올해 첫 호주 수출길



미국·대만 등 200여t

고창군의 대표적 농특산물의 하나인 '고창배(사진)'가 첫 호주 수출 길에 올랐다. 고창배영농조합법인(이하 고창배농산물유통센터)은 지난 23일 고창군농산물유통센터에서 호주로의 첫 수출을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과 수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수출물량은 화산배, 황금배 두 종류로 13t

(약 5000만원)이다. 호주 첫 시작으로 미국, 대만 등 약 200t의 수출을 통해 10억원 정도의 소득 창출이 예상된다. 고창 배는 미네랄이 풍부한 황토와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껍질이 얇고 과육이 연하며 달콤한 맛을 자랑한다. 특히 미국·대만·베트남 등 소비자들이 사로잡으며 K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정읍시, 주택 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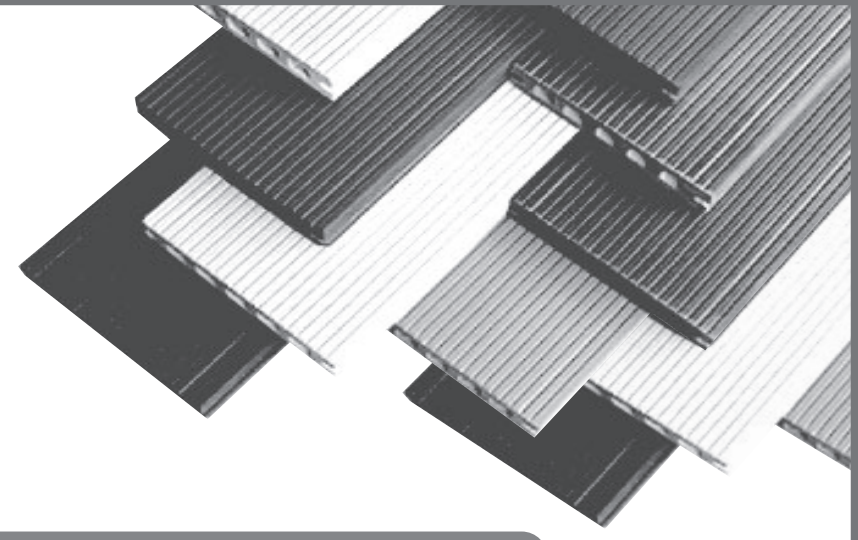
신혼부부·청년 대상 최장 10년간...다음달 1~25일 모집

정읍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안정 및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음달 1일부터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올해 지원 대상을 신혼부부에서 청년층까지 확대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으며 지원 기간 역시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2014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와 18세부터 45세 사이의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청년은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유사한 지원을 받는 수혜자와 올해 상반기에 동일한 지원을 받은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2%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연 1회 지급한다. 시는 자격 심사를 거쳐 대상을 정한 후 오는 11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10월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 홈페이지 시민마당 > 알림마당 >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